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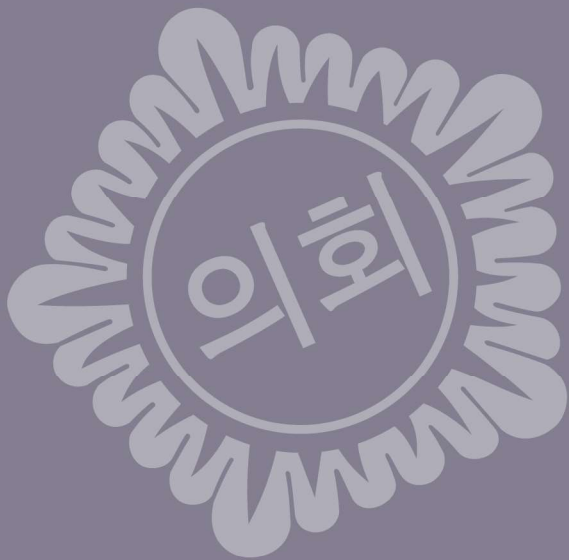
의정부시 의회소식

제 51호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움직이는 의회



의정부시의회



47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현장중심의 움직이는 의회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북부 수부도시 의원의 긍지를 갖고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우리 시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청렴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윤리도덕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참된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한다.
- 전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 의정활동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합의하에 해결하며 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발행인 오범구 의정부시의회의장
편집인 윤교찬 의회 사무국장
발행처 경기도 의정부시의회의
제작부서 의정부시의회의 사무국(의회홍보팀)
발행일 2022. 1.
제작총괄 황수진 의회홍보팀장
취재편집 장유진
사진 이영복
주소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전화 031)828-2542
팩스 031)828-2529
홈페이지 www.ujbcl.go.kr
디자인 한길애드

※ 의정부시 의회소식은 의정부시의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의회소식)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차

- 06 발간사
- 08 의정부시의회 구성현황
- 14 상임위원회 소식
- 18 안건 처리현황
- 24 의원발의 조례안
- 34 5분 자유발언
- 57 건의안
- 58 의원칼럼
- 59 의원연구단체 활동
- 61 의정뉴스
- 72 SNS에서 만나요

어 품 가

의정부시의회 의장



발간사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 시민과 소통하며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의정부시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의장 오범구입니다.

호랑이의 용맹함과 강한 기운이 가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뜻깊은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가와 지방이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춰,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길을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정부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고,
현장 곳곳을 살펴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고자
지난 12월부터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지방자치의 시대,
의정부시의회가 계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소식지를 통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부시의회의 면모를 보시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의정부시의회의장  오 범 구 올림

선거구별 의원현황

가 선거구

- 의정부1동
- 가능동
- 흥선동
- 녹양동



오 범 구 의원
(국민의힘)



조 금 석 의원
(국민의힘)

나 선거구

- 의정부2동
- 호원1·2동



구 구 회 의원
(국민의힘)



김 영 숙 의원
(국민의힘)



김 정 겹 의원
(무소속)

가 선거구

- 의정부1동
- 가능동
- 흥선동
- 녹양동



나 선거구

- 의정부2동
- 호원1·2동



라
선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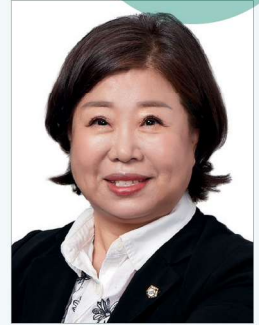
- 송산1·2·3동
- 자금동



김 현 주 의원
(국민의힘)



안 지 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계 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

- 장암동
- 신곡1·2동



정 선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 호 석 의원
(국민의힘)



김 연 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

- 장암동
- 신곡1·2동

비례대표



박 순 자 의원
(국민의힘)



최 정 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의 장



오 범 구 의원
(가선거구, 국민의힘)

부 의 장



구 구 회 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운영위원장



조 금 석 의원
(가선거구, 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



박 순 자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도시 · 건설위원장



김 현 주 의원
(라선거구,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기 등 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금석 위원장
가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김영숙 부위원장
나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2동, 호원1·2동)



김현주 위원
라선거구 / 국민의힘
(송산1·2·3동, 자금동)



김정겸 위원
나선거구 / 무소속
(의정부2동, 호원1·2동)



최정희 위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권역동,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의정부시의 예산 및 조직운용 등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박순자 위원장
비례대표 / 국민의힘



김영숙 부위원장
나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2동, 호원1·2동)



구구회 위원
나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2동, 호원1·2동)



임호석 위원
다선거구 / 국민의힘
(장암동, 신곡1·2동)



김연균 위원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암동, 신곡1·2동)



최정희 위원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도시 · 건설위원회

도시 · 건설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의정부시의 도시 계획수립과 교통 등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김현주 위원장
라선거구 / 국민의힘
(송산1·2·3동, 자금동)



김정겸 부위원장
나선거구 / 무소속
(의정부2동, 호원1·2동)



조금석 위원
가선거구 / 국민의힘
(의정부1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정선희 위원
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암동, 신곡1·2동)



안지찬 위원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 자금동)



이계옥 위원
라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송산1·2·3동, 자금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고, 제309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19개의 조례 및 규칙을 의결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였다.

제309회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을 심사하였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을 심사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다.

제308회 임시회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제309회 임시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및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였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및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7회 임시회 김연균 위원장

의정부시의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균)를 구성하여 1조 5,914억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임호석 위원장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호석)를 구성하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다.



안건처리현황

(2021. 8. ~ 12.)

2021년 하반기 의회는 8월 17일 제30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번의 정례회 및 3번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과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회기별 안건 처리현황

회기별	유 형 별												시정 질문	5분 발언
	계	조례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결의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	청원	기타		
		제정	개정	폐지										
계	122	37	38	1	4	14	－	1	8	10	－	9	－	23
제307회	22	7	6	1	1	2	－	1	2	－	－	2	－	6
제308회	3	－	－	－	－	－	－	－	1	－	－	2	－	0
제309회	37	7	14	－	－	12	－	－	2	－	－	2	－	8
제310회	60	23	18	－	3	－	－	－	3	10	－	3	－	9

제출 및 의결 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회기	제 출				의 결					폐기
	계	의원	위원회	시장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의견서 채택	부결	
제307회 ~ 제310회	122	74	-	48	122	112	6	3	1	4

회기별 처리현황

제307회 임시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8. 17. ~ 8. 30. [14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공 통 사 항 1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기획예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0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대표발의), 구구회, 임호석, 안지찬, 김연균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구구회(대표발의), 임호석, 김정겸 의원
1	의정부시 고문번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예산과
2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세정과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회계과
4	의정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복지정책과
5	2021년도 관내대학교 출원 동의안	원안가결	교육청소년과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5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이계옥 의원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도시과
2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주택과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건축디자인과
4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하수시설운영과
건의안 1건			
의원발의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건의문 채택	구구회 의원(대표발의) 등 13명

제308회 임시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9. 14. [1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1건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의견서채택	도시과

제309회 임시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10. 25. ~ 11. 3. [10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제출자 (담당부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4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김정겸(대표발의), 오범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정겸(대표발의), 오범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대표발의), 임호석, 안지찬, 김정겸, 김연균,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박순자 의원
1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감사담당관
2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행정과
5	의정부시와 울릉군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원안가결	
6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지역경제과
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8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9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0	2022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세정과
12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3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정책과
14	2022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교육청소년과
15	2022년도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6	2022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7	2022년도 관내 대학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18	2022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문화관광과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10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 ·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구구회(대표발의), 김영숙, 임호석, 김연균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김정겸(대표발의), 오범구, 임호석, 김영숙,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도시과
2	2022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도시농업과
3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교통지도과
4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전총괄과
5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환경관리과
6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건 제시의 건	의견서 채택	공원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의결 결과

임시회 기간: 2021. 12. 1. ~ 12. 20. [20일간]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공통사항 3건			
1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원안가결	기획예산과
2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수정가결	
3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 결	정선희, 안지찬, 김정겸, 김연균, 이계옥, 최정희 의원
운영위원회 소관 19건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조금석(대표발의), 김영숙, 김현주, 김정겸,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원안가결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영숙(대표발의), 조금석, 김현주, 김정겸,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현주(대표발의), 조금석, 김영숙, 김정겸,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김정겸(대표발의), 조금석, 김영숙, 김현주,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대표발의), 조금석, 김영숙, 김현주, 김정겸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1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조금석(대표발의), 구구회,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안지찬(대표발의),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정선희(대표발의),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가결	정선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박순자(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원발의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구구회(대표발의) 의원 등 13명
의원발의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의원

일련 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발의 · 제출자 (담당부서)
의원발의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김연균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
1	의정부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기획예산과
2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행정과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의정부시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민원여권과
8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복지정책과
도시 · 건설위원회 소관 13건			
의원발의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김연균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조금석, 박순자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정겸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임호석(대표발의), 조금석, 박순자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최정희(대표발의), 정선희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대표발의),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영숙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계옥 의원
의원발의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안지찬(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채택	도시과

의원발의 조례안



구 구 회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구구회 의원(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갇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안 건 명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구구회 의원(대표발의), 김영숙 의원, 임호석 의원, 김연균 의원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안 건 명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구구회 의원(대표발의) 의원 등 13명
주요내용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



최 정 희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 중인 생리용품을 우리 시 여성청소년 전체 대상 확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

안 건 명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의정부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안 건 명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
안 건 명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검사요원이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사후점검(실태점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제고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기록표결 도입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최정희 의원(대표발의), 정선희 의원
주요내용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

의원발의 조례안



이 계 옥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비상알림 장치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 설치 및 개방화장실 내부시설 수리비를 지원

안 건 명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

안 건 명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연균 의원
주요내용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안 건 명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 놀이공간 제공으로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

안 건 명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정겸 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의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안 건 명	의정부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

안 건 명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영숙 의원
주요내용	아이스팩의 배출을 억제하며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이바지하고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안 건 명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계옥 의원
주요내용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등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포함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



임 호 석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주요내용	다양하고 합리적인 교복 지원을 위하여 단체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교복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정부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여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

의원발의 조례안

안 건 명	의정부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주요내용	효율적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

안 건 명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주요내용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

안 건 명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김정겸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

안 건 명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호석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박순자 의원
주요내용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기여



정 선 희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주요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안 건 명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정선희 의원(대표발의),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



김 정 겹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오범구 의원
주요내용	노인체육 관련 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정부시 노인체육의 진흥을 도모

안 건 명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오범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여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안 건 명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오범구 의원, 임호석 의원,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지원관의 소속 및 직무 범위를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자	김정겸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팀별 업무분장을 추가 및 조정하고 전문위원 인력 재배치에 따른 직렬을 추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의원발의 조례안



박순자 의원

안건명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순자 의원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안건명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순자 의원(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

안건명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순자 의원(대표발의),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조금석 의원

안건명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자	조금석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

안건명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조금석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박순자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주요내용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

안건명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발의자	조금석 의원(대표발의),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

안 건 명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
발 의 자	조금석 의원(대표발의),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인용조문을 일괄 반영

안 건 명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조금석 의원(대표발의),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발 의 자	조금석 의원(대표발의), 김영숙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



김영숙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숙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의원의 겸직에 대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발 의 자	김영숙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지방의회 인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보전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발 의 자	김영숙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자율성을 제고

안 건 명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발 의 자	김영숙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

의원발의 조례안



김현주 의원

안건명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현주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

안건명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김현주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조례로 위임된 임시회 소집 및 의원발의 정족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안건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안
발의자	김현주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안건명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발의자	김현주 의원(대표발의), 조금석 의원, 김영숙 의원, 김정겸 의원,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함



김연균 의원

안건명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자	김연균 의원
주요내용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

안건명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연균 의원
주요내용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걷기 운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걷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안 지 찬 의원

안 건 명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안지찬 의원(대표발의), 최정희 의원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

안 건 명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안지찬 의원(대표발의), 구구회 의원
주요내용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시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등 관할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암동 수락리버시티1, 2단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촉구한다.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 호 석 의원



그동안 본 의원은 2018년 4월 20일 제279회 제2차 본회의, 2019년 4월 29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6월 30일 제298회 제3차 본회의 등 지난 3년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발언의 횟수는 3회이지만 그간 본 의원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듣고 파악한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락리버시티 1,2,3,4단지 아파트는 지난 2006년 4월에 사업 승인을 받아 2009년 8월 첫 입주한 아파트로서 당시 노원구 상계동과 의정부시 장암동의 경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노원마을을 서울 SH공사가 의정부시와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시행한 사업입니다.

추진 시점에서 공동개발이 아닌 토지매각 형태로 서울 편입을 시도했어야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입주할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함을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안타깝고, 당시 집행부가 SH공사의 공동 시행 제안에 단순히 개발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수락리버시티 1,2,3,4단지 아파트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둘러싸여져 있어 섬과 같은 형상이며, 여타 설명이 없다면 4개 단지로 구성된 서울의 한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 의정부 소재의 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치안 및 소방, 응급의료서비스의 신속한 대처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문제, 행정서비스 문제 등 같은 세금을 내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받는 차별의 고통은 매우 크고, 작게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급식 바우처카드와 재난기금카드도 사용에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정부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우리 의정부의 인구수가 줄어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지자체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고 시민의 삶의 질,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있었던 2020년 3월 13일,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체결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2조1항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협약서가 선거용이 아니었다면, 협약서대로 하루빨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하여 서울로 편입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절함을 외부로 표현하고자 입주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아파트 벽에 현수막까지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불편함을 안고 사는 이분들에게 협조나 위로보다는 불법 옥외 광고물이라는 명목으로 장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담벼락에 걸려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는 개인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아서 해야지 공공기관에서 철거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개인재산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단속기준의 잣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의정부시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화성시와는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용인시, 의왕시와도 내부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전철 대체 사업자로부터 받은 2,000억을 조기 상환하라!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 호 석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 운영권 가치’의 이름으로 받은 2,000억을 조기상환하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 시행자는 지난 2017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 이후 파산이유가 의정부시에 있다며 두 차례로 나누어 2,146억을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 대응하던 의정부시는 위기대응자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하였고 의정부시의회도 동참하여 2018년 200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7일에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의정부 경전철의 ‘관리운영 가치’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2019년 1월 29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조성 후 경전철소송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 한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경전철 소송은 총 금액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줄어든 1,720억원을 해지시 지급금 명목으로 물어 주면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나머지 조성금액 지급일은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나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 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은 2000억원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소달하였고 의정부시는 2,0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여원의 투자원리금 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 동안 갚아야 합니다. 또한 그 2,000억 중 1,000억은 고정금리, 나머지 1,000억원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이미 2019년 하반기부터 상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1년 동안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상환·지급된 원리금과 이자는 126억 7,000여만원이고 이중 이자만 해도 41억 6,000여만원입니다.

앞으로 21년을 더 이같이 갚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정부시는 일정 금액의 적지 않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미래 후손들도 부담을 져야 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행정의 적극성을 가지고 조기상환 대책반을 편성하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내에 대체사업자로부터 조성한 2,000억을 조기상환한다면 앞으로 의정부시 재정집행의 원활함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즉 조성금액 2,200억원에서 1,720억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원을 먼저 상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추가적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이고 치열한 미수세금의 징수결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며, 가용범위 내의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고보조금이나 도보조금 지원 증대를 통해 의정부시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도 차입금 조기상환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그 시기는 당겨질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는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 상향했습니다. 현 정부의 기초상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사업자에게서 우리 시에 조달된 자금에 대한 이자액 산정에는 변동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출해야 할 이자액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도 첨언을 드립니다.

따라서 안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는 2,00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재정이 안정화된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의정부 시민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 호 석 의원

예년의 지금은 각종 행사와 모임 등으로 활기차던 시기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확진자 접촉 시 지금은 예전처럼 모임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매년 하던 행사도 취소가 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 시 하게 되는 자가격리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의정부시 공직자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20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왔고 난관을 뛰어넘었으며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매 순간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는 사무실 책상 위 종이 문서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장의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쉽 없이 달려온 노고의 현장에는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승차 지원, 자가격리자 지원 및 관리, 방역 지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여러분들은 새로운 행정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위대하고 역사적인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인 10월 30일이면 의정부역 앞에 있는 접종센터도 임무를 다하고 철거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그곳을 관리·운영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진, 소방, 군·경, 봉사자 여러분께도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해 온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의정부시는 다가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기준 대한민국은 전체인구 중 70.1%가 코로나19 백신접종 2차를 완료하여 집단면역의 기초로 보는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함께 다하고 계시는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한 의정부시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개인의 생활과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입니다. 적정하고 합당한 포상을 통하여 의미를 되새기고 격려도 해주신다면 의정부시 모든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위드 코로나’시대로 전환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반환공여지(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 호 석 의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의정부시민의 재산인 반환공여지 중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나리백시티 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안전장치를 통하여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 재투자자를 통해 모두 환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6월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많은 개발사업 중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인 반환공여지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장동처럼 그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가져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초기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로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를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민간사업자는 의정부시가 지분을 참여하지 않은 순수 민간업체의 조합입니다.

이 사업자는 공동주택 분양이익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전부 미래 직업체험관에 재투자하고 재단을 만들어 귀속시킨 후, 나리백시티 개발 주식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식회사 나리백’이라는 회사가 300억원의 자체 콘텐츠 개발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고유 콘텐츠를 도입,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약 100여개의 파트너 회사와 연계하여 미래직업관을 만들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미래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갖추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홈페이지를 검토해 보고, 직접 주식회사 나리백의 임직원과 미팅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계획변경 시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주식회사 나리백의 임직원이 해당 부서를 통해 저에게 제출한 미래직업체험관 설립계획안은 당초 사업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인가 대비 50% 이하로 축소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획안을 토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였거나 승인하여 주었는지 해당 부서에 추가로 자료 요청할 예정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자가 콘텐츠 개발자금 및 개발능력이 있는 회사인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주식회사 나리백의 임직원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여 콘텐츠 개발 등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시 해당 콘텐츠를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는 공적 영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나리백은 일반 민간 기업입니다. 따라서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는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자금은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승인없이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의 자금을 주식회사 나리백이 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현장 설명회 때나 개발계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개발 비용은 주식회사 나리백의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공사업 관리규약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올해 1월과 3월 주주총회내용을 살펴보면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나리백’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AMC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천대유와 같은 AMC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사취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혹시, AMC를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나리백시티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나리백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등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료제출권 및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류단지 철회를 통해 8호선 유치 반드시 이뤄내야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단지 조성 추진은 8호선 유치의 가장 큰 장애물)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 호 석 의원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도시행정, 특히 '전철 8호선 연장'과 '물류센터 사업 추진'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의정부시 행정의 핫 이슈인 전철 8호선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고산동 주민은 물론 의정부 시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철 8호선 '서울-강동 ~ 남양주-별내' 구간 사업은 총거리 12.9km에 2조 384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공사로서 오는 2023년 9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8호선의 마지막 역인 남양주 별내 '별가람역'에서부터 의정부 '탑석역'까지 8.3km를 연장하고 주요 경유지는 청학역, 고산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8호선이 연장된다면 71만 인구의 남양주시와 47만 인구의 의정부시를 잇는 첫 철도가 될 것이고 경기북부 교통환경 개선,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8호선에 대한 의정부시의 도시행정을 보면 과연 8호선 유치를 희망하는가가 의심스럽습니다.

첫째로 고산동 소재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물류단지를 추진할 경우 과연 8호선의 B/C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의정부시의 물류단지 추진은 우리시 8호선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7호선이 세 번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8호선 유치를 위해 물류단지 계획보다는 제대로 된 B/C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로 본 사업은 남양주시와의 공조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의 마스터플랜에 관한 협약이나 계획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와 실천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와 함께 자신만만했던 835정책의 결과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의정부시의 미래비전은 거대한 물류도시가 되어야 합니까?

관내외의 도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정부시의 물류단지 추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 결과물 없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에 대한 미분양 땀처리를 위해 의정부시에 어울리지도 않는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아도 관내 복합문화융합단지, 캠프 레드 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등에 세우려고 하는 물류단지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를 기대하고 입주한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주민들은 엄청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시 도시행정의 수준은 시민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경기도에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e-커머스 클러스터 추진반대 도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의정부시 주요 거점의 물류단지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 경기도 및 남양주시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지하철 8호선 연장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성을 두고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닌 의정부시민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구 회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문화도시 지정 실패와 이견희 미술관 유치 실패를 교훈 삼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때, 이견희 컬렉션 미술관 유치에 관한 생각을 5분 발언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이견희 회장의 유족 측이 문화재와 미술품 총 2만 3,000여점을 기증한 이후, 문체부는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견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그 결과 총 10차례 논의를 거쳐 기증품 활용에 대한 주요 원칙을 정립하고 단계별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이견희 기증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치를 희망했던 40여 개의 지자체의 소리를 묵살하는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이처럼 문화의 중앙집중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개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60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된 46만 의정부시민의 박탈당한 문화를 즐길 권리를 위해 의정부시는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언제까지 중앙부처에 주어지는 '문화의 떡'만을 안일하게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 의정부시는 의정부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했다가 결국 예비도시로 지정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특색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도시의 문화 환경을 새롭게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화자원을 키워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특징은 문화도시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직접 찾아내고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길 수 있으며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올해 의정부시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롭게 도전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가 된 상태이며 앞으로 현장 검토심사와 최종 심사 등 몇 차례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정부문화재단에 요청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정책과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의정부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도시 선정 결과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끝까지 노력하여 의정부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습의 효과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문화도시 지정 실패와 이번 이견희 기증관 유치에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실패가 익숙한 행정이 아닌 성공의 성취감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정부시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예술의 도시, 아니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구 회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싱크탱크라고 불리고 있는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행정혁신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대학교 및 연구소, 민간전문가 등 각계 전문분야의 박사급 5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보건·복지분야, 교육·문화분야, 도시·교통분야 등 4개의 각 분야에서 10여 년이 넘게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자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연구원, 경기도의 경기연구원 등 광역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광역단위의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역적 특수성이 있고 주민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19년 3월부터 2년간 제5기 행정혁신위원회 교육·문화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을 쏟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과 주요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왔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미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우리 시정의 많은 혁신과 성과를 도출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항상 지지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10년간의 연구결과물인 21권의 연구과제보고서와 매년 개최되는 연구과제발표회, 더불어 각종 학술·정책 포럼 개최를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자주 마련하고 조찬포럼을 통하여 매주 공무원과 시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우리 집행부와, 전·현직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은 우리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10여년 간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연구된 275건의 결과물 중 많은 부분이 시정에 반영되었지만 그동안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 여러 가지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연구성과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해 전에 도출된 연구성과의 주제와 내용이 잊혀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행정혁신위원회의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의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며 과오와 성과 그리고 나아가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된 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성과물들이 미래 의정부시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의정부에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체육분야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컬링장, 배구장, 스피드스케이팅장, 바둑전용경기장,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친화 생활체육센터 등 많은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체육복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자문이 향후 우리 시 체육 정책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의 공동 목표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혁신위원회가 단순히 자문만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정의 혁신 엔진, 시정발전의 전략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여 우리 의정부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구 회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을 구상하는 경우 공통적인 장애요인이며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 부분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주민복지시설 등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가정할 때, 사업 추진을 위해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은 재원 마련 방법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의 다른 사업에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마련이므로 주민복지시설은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당장의 건립재원 마련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합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재산에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을 개발한 후 개발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임대 또는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재정부족, 개발계획 수립 난해,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유재산 개발을 의뢰하면, 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공사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공사는 위탁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임대 또는 분양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개발비용은 약 300억원, 개발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하면 약 320억원이 소요되는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복지 허브화를 비롯하여 복지와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그동안 보건소 동부보건과 보건의로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2016년부터 계획하여 지난 23일 준공되었습니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 기획,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건설 공사 관리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개발한 재산을 의정부시에 귀속시키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원리금 및 개발보수를 수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의정부시에서 추진 예정인 녹양동·자금동 주민자치센터 이전뿐만 아니라 민락·호원·흥선권역의 권역별 복합체육센터 그리고 원도봉, 반다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에 1,000여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시적인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위탁개발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유희자산의 부가가치 창출 및 저활용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집행이 결국 시민이 행복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체육 진흥 및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구 회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나, 의정부의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관내 어르신들은 외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운동기구, 건강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여가시간 활동은 주로 TV 시청이나 휴식 등의 실내활동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백세건강도시를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된 원인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체육건강센터, 수영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산악체험관 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락 복합체육센터를 시작으로 호원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녹양 바다비 국민체육센터, 흥선 복합체육센터, 호원 복합체육센터가 그 예일 것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들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건립되길 바라며, 특히 장애인분들,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는 대단히 환영받아 마땅한 일로 이러한 행정은 복지로서의 스포츠 가치를 확산해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예정대로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외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에 대하여 제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장의 1/50 ~ 1/100정도의 작은 부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 골프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장암동

299-3 일원에 단 한 곳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10월 기준 13개 클럽에 회원 수는 360여명입니다.

의정부 파크골프장은 현재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어울려 운동하고 소통하는 시설입니다만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때 혹은 직사광선이 내리쬐릴 때도 피할 곳도, 잠시 쉴 곳도 없는 삭막한 시설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권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만큼 최소한 한 곳 이상은 추가 설치되어야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재량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정부시는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파크골프장 설치에 미온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이 수요와 연령층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의정부 시장님과 의정부시 관계부서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파크골프장을 확대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아동보호를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구 회 의원

지난 3월 30일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시행 후 우리 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아동보호를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내다 버리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 현장 대응체계와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자체가 보호조치 전까지 학대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즉각 분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아동학대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 1월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상담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 채널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을 채용하여 9월부터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9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78%인 31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4%는 친부모였습니다. 부모가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친부모가 가해자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의 뜻을 시민들이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부서와 기관에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학대 피해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자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기존 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워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대받은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국 도비로 전액 지원할 것을 국가와 경기도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아동 친화 도시로의 첫 발을 떼게 된 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라 함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유엔아동권리 협약 이행에 필요한 10대 기본원칙과 56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여 인증받은 도시를 말합니다.

준비단계에서 인증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는 일부 부서의 역할과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서 아동 권리를 고려하여 아동 친화도시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절한 인력 지원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지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의 참여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아동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및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어른들 역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 없는 도시 의정부, 더 나아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의정부를 위해서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상병 시인의 생가는 왜 태안으로 갔나? 천상병 생가 복원을 요청한다.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순 자 의원



의정부시는 올해로 시승격 58주년을 맞이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를 자랑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행정으로 천상병 생가를 아무 연고도 없는 충남 태안으로 옮겨간 안타까움과, 그곳으로 간 이유를 밝히고 천상병 생가 복원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2차 도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본 의원 외 구구회, 조금석, 김현주, 임호석 의원으로 구성된 향토문화연구단체 중간보고회 중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대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정부는 삼국시대 이래 아직도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도시 지정 성공을 기대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술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상당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시설 또한 잘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의 자부심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도전의 성공적인 문화도시 지정이 되려면 본 의원이 요청하는 소중한 문화 자산의 복원에 책임 있는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합니다.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하고 우리 인생을 소품이라 표현한 순수 시인으로 불리는 천상병 시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살던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 자락의 고택이 충남 태안군 안면읍 대야도 바닷가 언덕에 있는 까닭이 어떤 연유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지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의정부시의 안일한 행정이 천상병 시인의 고택이 통째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면도에 있다고 하니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소 천상병 시를 좋아하던 한 지인의 정성으로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천상병 생가가 철거된다는 소식에 그 생가를 고스란히 개인의 사비를 들여 개인의 땅으로 옮겨갔다고 하니 그분의 정성

또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상병 생가가 고스란히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 의정부시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에는 매년 4월이면 ‘귀천’의 천상병 시인을 기리는 천상병 예술제가 2004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역사와 시간을 돌이켜 보면 추모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고택을 지키지 못한 천상병 예술제는 영혼 없는 반토막짜리 행사일 뿐입니다.

의정부시는 천상병 시인과의 인연이 남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천상병 시인이 생의 마지막 13년을 보낸 곳이 의정부이고 수락산 자락에 생가가 있었고 그 생가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예술제의 밑바탕이 되기도 남을 일입니다. 의정부시가 사랑한 시인 천상병을 기리는 예술제와 여러 곳의 소품길이 있지만, 그분의 고택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절름발이 예술제라는 불명예를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정성만도 못한 의정부시의 행정 공백이 누구 탓인지 묻고 싶습니다.

천상병 생가를 검색해보니 어떤 이의 개인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고 자란 곳이 생가면 좋으련만 여기와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나 생가라는 이름이 쓸쓸해 보인다.’ 또 다른 이는 ‘천상병 시인의 고향은 의정부이고 그의 고택은 안면도에 있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지도 못하고 재도전했으니 꼭 성공하여 천상병 생가의 원상 복구가 어렵다면 제2의 대안으로 수락산 자락 소품길 어딘가쯤에 모형 고택이라도 세우는 계획을 요청합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하면 정말 초라하고 소박한 고택의 모습이 대단한 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그 모습을 복원하는 건축 설계가 전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원의 명소화 방향과 유명인의 인물보존 방향에 대한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은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기에 그 가치를 대대로 계승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생가 복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모든 사업 진행 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한다.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순 자 의원

2021년 의정부시의 총예산 규모는 1조 2,000억원 이상을 편성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우리 시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예산의 소중함을 한번 더 깨우치고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행복소식지 9월호 화보에 실린 ‘도심 속 자연 휴식처, 부용시민정원에서 가을을 만나다!’의 의정부 부용시민정원의 모습이고 그 옆은 본 의원이 9월 12일 일요일 카메라에 담은 부용시민정원의 모습입니다. 자료 사진을 보면 확실한 비교가 됩니다.

조성했던 시기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의 모습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초나 식물도 사람만큼이나 잘 보호해야 하는 신 기본이고 열악한 환경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잡초가 무성하고 식재한 화초들이 고사하기도 했지만 잡초로 뒤덮인 모습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보에 실려 홍보한 만큼 그곳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전화도 여러 차례 받았습시다. 탑석역에서 부용산 소풍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천일홍, 백일홍, 메리골드, 채송화, 일일초 등이 가득한 부용시민정원을 만날 수 있다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9월 휴일에 남아 있는 그곳의 모습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어 시민의 혈세 낭비가 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용시민공원의 조성사업 예산집행을 확인해 보니 민락동 부용터널 상부에 2020년 9월부터 11월에 조성되었고 2021년 5월부터 8월에 정비가 끝났으며 초화류와 수목 식재로 테마정원 조성을 했으며, 식재초화류 내역을 보면 2020년에 초화류 8종 16만본, 수목류 9종 9,100주, 2021년에 초화류 9종 7만 3,700본이며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었고 인건비, 사업비를 합한 총 2억 7,748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 입지 조건상 면적이 넓지 않아 타 시·군의 꽃잔치에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쉬운 대로 이런 공간이라도 잘 활용하면 시민들의 행복지수 한결 더 높아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예산의 집행과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원을 꾸미는 화초나 나무들이 다년생이

아니라는 것쯤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시민정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관리 보호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관리 소홀의 부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용시민정원에 대한 관리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정원을 알리는 표지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하는 작은 표지판의 개선도 요청합니다.

모든 사업의 진행 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사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예산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이 또한 시민들의 질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G&B 사업으로 지역 곳곳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푸른 의정부 가꾸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덕분에 잘 정비된 꽃과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행복지수가 따라옴을 느낍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 사진은 미술도서관을 지나는 민락로 대로변에 잘 조성되어 있는 무궁화 꽃길이고, 그 옆으로는 송산사지의 모습입니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입니다. 꽃이 만개하면 그 모습 또한 아름답고 보기도 좋습니다. 대로변에 조성된 무궁화 꽃길의 연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민락로의 무궁화 꽃길이 상징적인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무궁화 꽃길 조성예산 검토 후 의정부시민들의 애국심을 기르는 무궁화길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 송산사지 사진 속 모습을 보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많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주변이 가족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개선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조성된 나무들이 아직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으며, 중간 곳곳에 건축물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 조성을 구상해보는 계획은 어떠지요? 중략하고, 많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철저한지 다시 한번 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차난 해법에 대한 제언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순 자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주차난 심각성에 대한 문제 지적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개선의 의지나 성과가 없어 또다시 사패산 메아리를 상상해봅니다. 비단 주차 공간 부족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몇 번의 문제 지적이 있었고, 과연 개선의 의지나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2월 17일 제294회 임시회와 2020년 4월 27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 때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용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진 모습과 성과도 없으며 어떤 노력과 정책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구 47만에 자동차 등록 수가 대략 16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으로 본다면 여전히 주차난의 문제해결이 암울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해결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방법을 만들어내고 개선책에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이 어렵지 않은 작은 자구책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다보면 한가한 이면도로나 생각보다 면적이 넓은 한적한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현동 공고개길 도로를 살펴보면, 건영아파트 진입 방향으로 좌측편에는 주차선이 설정되어 있고 우측편에는 주차선이 없어 주차단속 대상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양방향의 주차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다행히 도로면적이 여유가 있어 우측편에도 주차선을 만들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도 줄어들 것이며, 양방향 주차선을

만들어도 양쪽 운행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자동차 주행이 가능하며, 공간의 여유가 있어 우측방향까지 주차허용선을 제공한다면 25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대형차의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은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를 돌아보면 이러한 공간들이 분명히 요소요소에 있다고 봅니다.

불법주차 단속보다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의 모습이고, 조속한 시일에 실효성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정부시의 주차공간 확보와 개선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요청합니다.

다음은 민락2지구가 개발되면서 민락대로를 비롯한 도로 곳곳의 횡단보도 모습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횡단보도 건널목 도로의 턱이 사진으로 보는 모습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모차를 이용해 건너는 엄마와 아이, 자율신경이 둔하신 어르신들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누구나 무심코 건너는 순간 높은 턱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에도 안전이 우선이고 안전이 최고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걸림 턱 제거 정비에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소한 안전불감증이 대형 사고의 유발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북도 신설 관련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 선 희 의원



본 의원이 2018년 제28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의원 일동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60여년 동안 안보를 위한 국토개발정책의 제한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았으며 이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400만 경기북부 도민들의 지방분권 재정적 균형을 통한 경제, 문화, 교육, 의료권 등 활성화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이며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 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북도 설치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 때마다 정치화두로만 논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제1호 법안인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재점화되었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입법공청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경기북부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경기도 분도론에 동참함으로써 경기 남·북부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도 설치 관련 여론 조사에서 46.3%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찬성을 하였으며

찬성의 이유는 경기 남·북부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결과만 보아도 지역발전 불균형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반영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분도를 위한 기관인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소방안전본부 경기 북부분부 등 행정기관도 마련되었으나, 경기북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로 2번이나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고 설치를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경기도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또한 의정부시 집행부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 역사에 없던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집행부는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북부 신설을 경기도민의 뜻이며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 선 희 의원

주민자치회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별 설치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주민의 발전, 화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 중심의 주민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나가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라 법적 조직으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며, 동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에 대해 의결을 거쳐 자치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의정부시에서 2020년부터 준비한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자치회 설치를 위한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 들어서는 조례 개정, 위원 공개모집을 거쳐 9월 1일자로 14개 전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475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주민자치회의 첫 걸음마 단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주민들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교육과 워크숍, 전문적인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예산편성권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며 주민참여예산기구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공적활동으로서 모든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관협력의 한 축인 행정도 기존의 주민동원 관습을 버리고 실질 주민참여를 위한 변화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현재의 행정은 단순 지원 형태로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 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관계설정과 의제실행 등 주민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자치회의 안정을 위하여 동 자치지원관 또는 마을코디 형태의 2년 임기제 공무원인 전담 인력을 편성하고, 전문적인 주민자치 관련 정책을 돕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혁신의 대표성인 동장추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종적인 인사권은 의정부시장에게 있으나 주민이 임용과정에 참여하고 인사권자에게 적당한 임용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용된 동장은 1년 있다가 떠나는 과거의 동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민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하여 지원해주고, 동장이 최소 3년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리며, 끝으로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의 주인공은 주민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활동을 하고,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 각자가 의견을 공유하면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시의 주민자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플러스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의 조기 은퇴 후 사회활동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정 검 의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허리인 중장년이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경제지의 조사에 따르면 체감 정년퇴직 시기 조사결과 평균 51.7세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정년 60세보다 8년 이상 이른 시기로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들은 평균 49.5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평균 51.7세,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평균 53.8세로 각각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준비 항목 1순위는 경제력으로 나타났으며, ‘계속 일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준비 중’ 53%로 나타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 취미와 특기를 준비 중’이 50.4% 등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이외에 ‘창업 준비’ 37.2%, ‘아르바이트 및 N잡’ 등이 35.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허리를 중추라고 합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인간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55세 이상은 우리 시대의 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빈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진은 저희 의원들이 캐나다 공무 연수 중 찍은 사진과 119 페이지에 달하는 55플러스 센터 프로그램 설명 매겨진입니다.

캐나다의 해밀턴 시는 2013년 해밀턴 의회의 승인을 받아 ‘An age-friendly Hamilton’이라는 슬로건 하에 55플러스를 위한 주택, Community 기반을 통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간, 평생학습공간, 건강을 위한 서비스 공간, 사회적 참여 공간 등을 마련하여 55플러스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남녀는 그간의 가정과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온 중추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이들을 품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살려주고 그들의 연륜으로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밀턴 시장 프레드 아인스 버거는 55플러스센터 프로그램 가이드 메시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시가 아이들과 55플러스가 함께 어울리고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프로그램 카테고리는 목공예, 도자기 등의 예술, 볼룸댄스와 어쿠스틱기타 등 음악, 특별 관심 분야, 휘트니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취업 및 사회적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아동을 위한 복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어르신을 위한 복지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도 있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은 빈약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복지와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온 중장년에게 55플러스센터를 통해 더 남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의정부를 건강한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복지사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원 선거사무원 강제 동원 금지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정 겹 의원

기초의원으로서 주제 넘은 발언이라고 하시겠지만 의정부시 공무원도 47만 시민 중의 한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사무원 '공무원 강제 동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서 저녁까지 쉼 없이 노동을 하지만 수당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에 편중된 모집 방식을 개선하든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 날 새벽 5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니, 보통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해서 인근 금고에 보관된 투표용지를 투표소로 옮기고, 투표용품도 일일이 확인한 후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면 유권자들이 줄을 잇고, 각종 돌발 상황에도 신경써야 해 긴장의 끈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아파트 밀집 지역 투표소는 밀려드는 유권자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점심 식사도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교대로 편의점이나 인근 식당 등에서 재빨리 때워야 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소 정리와 청소, 투표함 개표소 인계 등까지 마치면 저녁 7시가 훌쩍 넘기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원 위촉 부동의'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반대 운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공무원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지만, 선관위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 때문에 지방공무원 비중이 더 높다고 봅니다.

현재 선거사무원 위촉은 선관위가 각 시·군·구에 필요한 인원을 정해 협조를 요청하면, 시·군·구는 요청받은 인원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조라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헌법(제115조)에서 '선관위는 선거사무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지시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제5조)에도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해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으면 우선하여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1948년 첫 선거 이후 70여 년 동안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원인 줄 몰랐고, 당연한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선거 날만 되면 너무 많은 일과 책임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표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선거사무 종사원의 약 60%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의 조그마한 발언이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석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교 등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워도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인 최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나 상가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에게 유료 주차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있으면 법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주차 공간이 사라지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주택 거주자 및 상가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답답한 실정입니다.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면 올바른 시행이긴 하지만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마저 철거되는 바람에 평소처럼 주차를 했던 운전자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도 경찰청은 예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시 주·정차 허용에 따라 허용지점 선정을 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교 정문 등 일부 보호구역에서는 통학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드롭존을 설정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하면서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구역의 많은 시민들의 차량은 어디에 주차해야 할 것입니까?

그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주차를 하다가 갑자기 주차 공간이 사라지고 과태료 또한 과중되면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주차 문제로 싸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및 어린이 승·하차 행위 등에 대해 계도기간 운영이 필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현장점검을 통해 단계적으로 철거 및 단속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세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시인성 강화, 옐로카펫, 통학로 개선 사업 등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보호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교통안전 시설이 미비하고 불법 차량으로 다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인성 강화 등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깨끗한 의정부시를 위한 제언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현 주 의원



어느 도시에서나 늘어나는 쓰레기의 처리 문제는 해결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설치한 거점식 배출시설을 돌아보며 그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진과 같이 텅 빈 거점식 배출시설 주변에 쓰레기봉투가 쌓여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수거를 위해 미리 정리해 놓은 것으로 수거일인 다음날 치울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배출시설의 설치 이유와 상충되는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거점식 배출시설은 이곳에 무단투기를 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깨진 유리창’의 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무단투기를 방조하게 됩니다.

사진을 몇 장 더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배출시설 주위로 다양한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미처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주변 바닥을 더럽혀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의 규격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구는 있으나 전용 용기는 없는 곳은 오물이 스며들거나 봉지가 터져 더럽혀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구가 아예 없는 곳은 이렇게 배출시설 밖에 비닐봉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주위로 건축폐기물까지 산적해 있어 주변의 통행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주위에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 경고스티커가 붙여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 주위로 더 많은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불법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관리부서에 확인해

보니 경고스티커 발부 이후 수거를 하지 않은 채로 주변 탐문 등으로 불법 투기자를 찾는 것이 원칙이고 계속 찾지 못하는 경우 타 부서로 이관해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일이 지나는 동안 이곳의 쓰레기는 계속 쌓여만 갈 것입니다. 채증을 철저히 한 후 폐기물을 수거하고 탐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불과 4개월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제작했던 벽화는 배출시설에 완전히 가려져 있고 그 주변은 무단투기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다녀온 모든 배출시설에는 무단투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CCTV로 무단투기를 단속한 경우는 의정부시 전체에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CCTV 설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막연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는 것 외에 실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시는 다양한 청소정책을 홍보하면서 행복홀씨 입양 단체 마을정화활동,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운영, 거점식 배출시설의 관리인력 운영 등을 홍보했지만 현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점식 배출시설이 또 다른 쓰레기 무단투기 거점 시설이 되어버렸고 CCTV와 경고판, 경고 플랜카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단쓰레기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잠깐 살펴봤듯이 좋은 정책을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여 오히려 우리가 시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방역체계가 워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이때에 도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의정부시의 청소행정이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정희 의원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녹양동 민원 현장에서 매일 휠체어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중학교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쉽게 다닐 등하굣길은 학생에게는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가로수와 버스 정류장의 시설물이 너무 인접해 있어 도로 폭은 좁고 나무뿌리로 인해 훼손된 보도블럭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 혼자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도로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상황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가로수를 정비할 때나 버스정류장 설치 후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통약자’란 생활 차원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이용편의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30%인 1,540만명으로 고령화 추세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8만명 증가했으며, 버스·철도·여객시설에 비해 보도나 도로와 같은 보행환경에서 느끼는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약자는 2020년도 말 13만 8,635명에서 2021년 9월 현재 14만 13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인도의 높은

단차와 좁은 폭,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 등이 다수 있어 일반인조차 온전히 보행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사후 점검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 이동편의시설 대상기관이 공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사전점검 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점검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장애 유형별로 각각 검토하도록 하여 점검 절차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은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확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해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요소는 제거하여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춰 주자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이 빠른 시일 내 제도로써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천변 개발에 대한 제안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저는 오늘 우리 의정부시를 가로지르는 젓줄인 천변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단체에서는 우리 하천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FM으로 흙공을 만들어 던지는 행사와 더불어 미나리도 심고 애벌레를 없애기 위해 미꾸라지도 방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젓줄인 백석천, 회룡천, 부용천, 중량천에 사시사철 철새와 수많은 종류에 물고기 떼가 무리를 지며 노닐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 끝에 천변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장마를 대비해 석축도 쌓고 징검다리도 새롭게 단장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신체 스포츠로서 걷기, 자전거타기, 농구, 테니스 벽치기뿐만 아니라 마인드 스포츠로서 장기, 바둑의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며 문화행사로는 개인 버스킹과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는 등 많은 행사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일보된 의정부 하천의 변화된 모습을 그려 보겠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켜 잘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출렁다리나 호수공원과 같은 곳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의정부에는 실개천에서부터 이어지는 여러 천들이 있습니다. 47만 시민의 보금자리를 가로지르는 풍요로운 천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라보고 즐기고 생활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며,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를 토대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포천시 광릉숲은 2년여의 연구 끝에 도로와 보도를 분리시켜 위험하지 않게 친환경적인 나무데크로 봉선사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며, 연천은 재인폭포에 둘레길을 설치하여 풍광을 감상하며 걸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푸드트릭과 동네 주민들이 생산해낸 농산물을 보며 만지며 먹는 재미로 구입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서울시

양재천도 잘 개발되어 있어서 사계절이 시민들에 힐링할 수 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정부 소풍길 둘레길과 천변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의 젓줄 천변에 나무데크로 둘레길과 전망대 쉼터,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인들에게도 애견파크 등을 설치함으로써 그 어떤 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정원 같은 천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원동 호장교 아래 파크골프 320명 동호인들의 소망인 쉼터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아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각 하천마다 테마가 있는 천변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버스킹과 음악회, 전시회, 건강 걷기가 어우러지는 테마 천변 개발을 통해 시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다른 시에 없는 경전철을 연계하여 주변 관광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1호선 전철과 경전철은 자가용을 갖고 오지 않아도 편히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잘 개발하면 특별한 정원같은 의정부시가 탄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변이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아나바다 장터의 장이 되어 의정부시의 활력을 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정부에 중요한 문화재와 맛집과 연계하고 우리 시민의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음악 도서관 미술도서관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의 자랑인 예술의전당은 계절에 맞는 예술공연을 기획함으로써 의정부시에 제1 오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는 소풍길, 둘레길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생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해 온 소풍길 구간의 식생조사를 한 사진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외래식물과 우리 시화 철쭉꽃에 모습을 담아서 중량천 등 동막교 아래에서 이틀간 시화 알리기 사진전도 했습니다.

이렇듯 의정부 곳곳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멋진 정원같은 의정부시의 천변의 재탄생을 기약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임대 분양 관련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분양가 책정 및 8호선의 빠른 개통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 요청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 옥 의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시민들에게는 주거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5년 조기 분양을 앞두고 희망과 걱정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도 갖게 되면서, 한편 근심으로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린다는 시민들의

마음과 형편을 들었으며, 노심초사 끝에 민원을 넣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확실하게 적용되기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바램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으로 정부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L·H의 임대아파트 분양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행운의 키와 정부시책의 혜택을 잘 받는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작은 월세로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시적인 임대아파트에 사는 마음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조기 분양을 바라는 이유는 집 없는 성인이라면 모두가 같으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어 바램이 있다면 안식처, 결국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이 바램은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생활 안정을 갖는 것, 집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박한 바램입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꿈과 바램이 현실은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두터운 벽이요, 높은 벽입니다.

내 집 마련에 씬숨이를 아끼며 분양가를 저축하기 위해 힘들고 고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집 마련에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5년 조기 분양에 있어서 의정부시민은 근거 없는 낮은 분양가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책정하되 인근 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을 촘촘하게 잘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되는 착한 분양 가격으로 책정되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반쪽짜리 내 집이 아닌 행복하고 안정적인 온전한 내 집 마련의 귀하고 감동적인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기분양 받는 과정에 방법과 기준을 궁금한 사항을 있다면 시민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며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이었던 시민들에게 내 집을 안겨주는 축복의 선물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호선이 4차선 예비 철도망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타당성조사에 예산을 들여서 8호선 개통에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 시설 및 운동기구 관리와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랑천 계단의 중요성에 대한 2차 발언

동영상



※ 주요내용 발췌, 전문은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연 군 의원



본 의원은 의정부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운동기구에 대한 문제점을 2019년 2월 제287회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유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많은 운동시설에 위험성이 보이며, 또한 관리가 잘되지 않았으므로 녹이 슬어 있거나 고장 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시와 인근 지자체 도봉구 중랑천에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같은 중랑천 뚝방길이 우리 시는 면적이 좁고, 도봉구는 면적이 넓은 편이어서 운동기구를 좁은 길에 설치하게 되면 걷는 사람과 운동 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봉구는 운동기구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중랑천에 많은 종류의 운동기구를 잘 정리 정돈해 한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는 약 300개 1,275면 수이고, 공원과 하천에 약 200개 이상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관리가 공원과, 하수관리과, 체육과 등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또한 운동기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운동시설 및 기구 점검 및 설치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법이 강구되지 않는 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운동시설 통합관리를 할 집행부 부서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운동시설이라 하면 모두 체육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한 혼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304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단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청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계단 한 곳만 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계단이 먼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작년 겨울 발곡 음악도서관 옆 중랑천 계단을 한 시민께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의정부시 각종 천변에 수십 개의 계단을 작년 겨울에 이어서 올 겨울에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운동을 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중랑천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 부시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8.17.)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동영상



※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구 회 의원 등 13명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을 위한 지향점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북한과의 최접경지로서 6.25전쟁 이후 60여년이 넘게 안보 등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의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돼 왔고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는 경제·문화·교육·의료권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북부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은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상실케 하였고 이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북도의 설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첩돼 있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균형있는 지역 발전은 물론 재정적 균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다가 올 남북통일시대에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경기북도와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병무청, 경찰청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어 분할에 따른 행정적 기반요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또한 경기도의 분도 논의는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고, 경기북부 지역사회에서는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있으며, 타당성 역시 충분하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의 차별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6만 의정부 시민과 400만 경기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경기북부지역 민의를 대변하여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길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인간의 탐욕과 지구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일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영생불멸의 삶을 살 것처럼 재물을 모으고 또 모은다. 이도 모자라 타인의 재물을 탐해 사기를 치고 배론 강도처럼 완력으로 빼앗기도 한다.

고사성어에 등록망축(得隳望蜀)이라는 말이 있다. 농나라를 빼앗으니 촉나라를 갖고 싶다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돼지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비유이다. 돼지는 배부르면 음식을 탐하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는 병들고 있다. 인간들은 지구의 모든 자원을 다 소진해 버리려고 하는 거 같다.

김소월의 시처럼 예전의 우리는 진달래도 보고, 강변에 살며 금모래를 보았다. 지금의 도심은 매연과 이산화탄소, 황사로 별이 빛나는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다. 바다거북이 낚시줄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있고 필리핀 인근 심연의 바다 일만 미터 심연의 바닷속에서는 비닐봉지가 유명한다.

나만 살아갈 지구는 아니지 않는가? 욕심을 줄이자. 덜 먹고 덜 입고 베풀며 살 필요가 있다. 요즈음 어디를 가도 쓰레기가 널려 있다. 아무리 환경미화원과 봉사자가 있다고 해도 담배꽂초와 비닐봉지 그리고 플라스틱 페트병, 스티로폼 등을 아무렇게나 버린다.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성숙한 수준이 아닐까?

우리 한국 사회는 해방 이후 급속하게 자본주의가 되며 물질의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걸맞은 정신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못했기에 자본의 노예로 전락했는지도 모른다.

인간들의 탐욕이 야기한 환경 재난은 너무나 심각하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내리고 사막은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지진과 해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닥칠 재앙을 예방하고자 정부 차원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를 국제 수준으로 맞추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솔선수범하여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활용품 매장이 생기고 이곳에서는 저렴한 재활용품 판매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별도 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하는 리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구의 자원은 결코 무한대가 아니다. 지금껏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입어왔으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하나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줄이고 남의 눈을 의식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생활 자세를 가져보도록 조금씩 나부터 노력해 보면 어떨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지찬 의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성황리 완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2021년 5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과 8월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0월과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5월부터 11월까지 180일 간 수행한 연구용역을 성황리에 완료했다.

2021년 의원연구단체는 ▲지방행정 연구회(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의원),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김연균, 정선희, 김영숙 의원),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원), ▲숲체험 및 산림 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안지찬, 이계옥 의원), ▲향토문화 연구회(임호석,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의원)로 총 5개 연구단체가 활동했다.

개별 연구과정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집행부 담당자, 자문위원 등의 참여를 통해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결과 활용도를 높였다.

연구단체에 참여한 의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분 자유발언(“천상병 생가 복원을 요청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의회 대응 방안 모색, 연구 활동 관련 조례 제·개정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연구결과가 의원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지방행정연구회



체육 행정·복지 연구회



태권도 공연·문화콘텐츠 연구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한편,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성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21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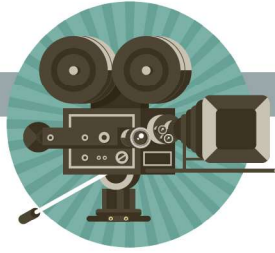
연번	단체명	참여의원	주요성과
1	지방행정연구회	최정희, 오범구, 김정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의회 대응 방안 모색
2	체육행정·복지연구회	김연균, 정선희, 김영숙	의정부시 체육 현황 분석을 통한 체육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자료 제시
3	태권도 공연·문화 콘텐츠 연구회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임호석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4	숲체험 및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안지찬, 이계옥	유아 숲 놀이 문화 관련 의정부시만의 특화 프로그램 모델 제시
5	향토문화연구회	임호석, 구구회, 조금석, 박순자, 김현주	「의정부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5분자유발언(천상병 생가 복원을 요청한다)



숲체험 및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향토문화연구회



- 자치행정위원회 -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생학습원 이관 관련 정담회 개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7월 13일(화) 의정부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의정부시평생학습원 등 관계자와 함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평생학습원 이관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추진계획과 추진일정, 주민자치회 지원방안 등 종합 추진계획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업무 이관에 따른 추진현황, 추진방향, 향후일정 등 운영 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주민자치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고 직접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업무 이관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감사 채용 관리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순자 자치행정위원회장은 “우리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업무 이관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 개정 발판을 마련하다

- 국토교통부, 준공검사 및 공공시설 인계인수 지침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1일 의정부 시의회가 공문으로 송부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을 7월 22일에 보냈다.

한국토지공사(LH)에 택지개발사업의 자체 준공검사 권한을 부여한 국토부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이 공공시설물을 인계 받아야 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사업 업무지침 개정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의정부시의회는 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 뒤에는 의정부시 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 먼저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제안했고, 지난 5월 25일 31개 시군 공동으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건의안에는 20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을 개정해 한국토지공사(LH)가 시행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등 공공 시설물 인계인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의 제기 등 협의 절차 없이 인수인계 조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관할 관리청과 상호 협의 없이 공공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LH)가 독단적인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현행 '택지 개발사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21일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송부하였다.

건의문에는 현행 제도로 인해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 증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업무 폭증과 부실 시공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에 공식적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성과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07회 임시회 개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8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8월 3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임호석 의원은 「장암동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촉구」, 구구회 의원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16개의 안건을 심사하며, 26일과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구구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차별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 등의 안건심사에 있어 동료 의원들께서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제307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8월 17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폐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연균 위원장과 임호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구구회, 정선희, 이계옥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에서 제출한 1조 5,914억 9,661만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10억 5,112만 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정선희,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계옥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호석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구회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9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의정부시의회, 제308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9월 14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신곡근린공원을 의정부시민의 여가활동 및 레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공원시설의 용도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의 의견 제시를 위해 원포인트로 진행됐다.

오범구 의장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공적인 공원이 조성되길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격려품 전달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16일 양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공두리네, 나눔의 샘 양로원, 이삭의 집, 밀알의 집 4곳을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의정부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올해는 오범구 의장과 사무국 직원 등 최소 인원만 시설을 방문하였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어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없어 아쉽다”며, “시설 관계자 모든 분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범구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이번 후원 물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50회 시민의날 기념

지역발전 유공 의장 표창 수여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0월 19일 의장실에서 '제50회 시민의날' 기념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은 매년 시민의날 기념행사에서 표창을 수여해 왔으나,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2020년에 이어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참여 인원 축소 및 분산을 위해 시간대를 달리하여 1부, 2부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혹시 모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 참여로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내년에는 행사장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표창 수여식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309회 임시회 개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0월 25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정겸,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와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시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며,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등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성과를 파악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청렴 교육 실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0월 26일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유쾌한 청탁금지법&행동강령,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1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는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교육 강의를 맡은 어울림교육개발원 배정애 강사는 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 부패방지 시책, 청렴도 제고 방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범구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함양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뉴스

11월

- 도시·건설위원회 -

의정부경전철차량기지 임시 승강장 현장 방문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주)는 11월 2일 지난 10월 30일 영업개시 한 의정부경전철차량기지 임시승강장(북합문화융합단지)에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고산지구 입주자 및 향후 북합문화융합단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정부경량전철(주))가 제안하여 지난 202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전액 부담하여 진행하였으며, 의정부시에서도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다.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의 열차 운행은 평일 76회 휴일 72회로 운행할 계획이며, 지난 5월 본 공사를 완료하고 안전성 검토 후 국토부 사용 승인 후 개통하게 되었다.

현장방문에서 위원들은 사업시행자 및 의정부시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승강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은 "고산지구 입주자 등 향후 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제309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11월 3일 폐회했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조금석, 김현주, 최정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펼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환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정겸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최정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박순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구구회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정부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김연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으며,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의정부시의회-울릉군의회’

상호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0일 울릉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시의회와 울릉군의회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병수 울릉군수,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울릉군과 자매 도시가 되면 의정부 시민이 울릉군 관광 시 입장료 및 여객선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특산물, 문화 관광 분야 등 교류·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의정부시의회가 지난해 울릉군의회에 MOU 추진을 제안했고, 의정부시, 울릉군, 울릉군의회와 긴밀한 공조 끝에 의정부시-울릉군은 자매 결연, 의정부시의회-울릉군의회는 업무 협약이 성사되었다.

양 의회 협약서에는 상호 기관 방문, 간담회, 캠페인, 협약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교환 등 상호 위상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신비의 섬 울릉군과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관광, 문화예술,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1 시의장배 체육대회 성료

- 제3회 의정부시 의장기 연령별 축구대회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제3회 의정부시 의장기 연령별 축구대회 결승전'을 11월 14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축구협회에 소속된 50대 이상의 동호인 총 21팀이 지난 7일 예선전을 치러 상위 3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에서 한우리 축구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준우승은 금오축구회, 3위는 오육회축구회에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각 팀당 25명으로 경기장 입장을 제한하였고 참가 선수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도 확인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시의장배 축구대회가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전한 스포츠 경쟁으로 축구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화합과 발전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 체육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훈단체장과의 열린 정담회 개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1월 29일 의원회의실에서 보훈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시의원들과의 열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보훈단체 활동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담회에는 의정부시 보훈단체 협의회 정기준(전물군경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광복회, 전물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이 참석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리게 되어 열린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보훈단체 예우 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요청과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미망인수당 지원 조례 제정, 생활편의 개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다.

오범구 의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항상 고마움을 가지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월부터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실시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2월 1일 개최하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부터 상임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든 의사진행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본회의에 한해 인터넷 생중계가 되었으나,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확대 실시하여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로 의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범구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라며 “앞으로도 47만 의정부시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오범구 의장 “집행부와 소통하고 힘을 모아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겠다” 다짐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2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본회의의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숙, 구구회, 이계욱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순자, 임호석, 안지찬, 김영숙, 최정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 54건 심사, 6일, 16~17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하며,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와 소통하고 힘을 모아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겠다”며, “이번 회기부터 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이로써 시민 여러분은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 여러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처리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2월 7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김연균, 박순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일괄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7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6~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호석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 박순자, 김영숙, 최정희 위원) 심사를 거쳐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 후 폐회 할 계획이다.



사랑의 연탄 나눔, 따뜻한 손길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올해로 9년째 소외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2월 18일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면 행사는 지양하고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호원권역(의정부2동, 호원1·2동)에 거주하는 15가구를 선정, 1가구당 300장씩 총 4,5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춥다고 하는데, 이번 연탄 나눔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의회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실천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2013년 3월부터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31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처리 -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20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총 95일 간의 2021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겸, 구구회, 임호석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박순자 위원장) 소관 21건, 도시·건설위원회(김현주 위원장) 소관 13건 조례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계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호석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 박순자, 김영숙, 최정희 위원)가 당초 예산안의 총 11건, 7억 3,058만 원 삭감하여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1조 3,992억 5,325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2022년 새해에도 의정부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중히 담아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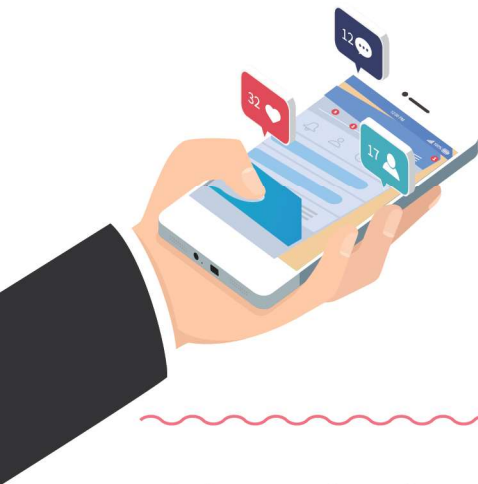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1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 회의실에서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균형 있는 인사교류, 신규임용 시 위탁,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결원 시 충원 요청 등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았는데, 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시와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 운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SNS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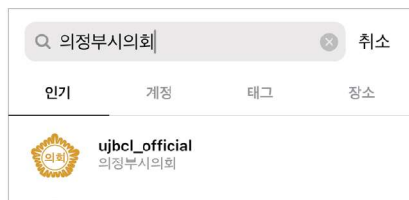
페이스북 친구가 되고 싶다면..



- ① 먼저 '페이스북'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④ 의정부시의회와 폐친이 된 기념일!!



인스타그램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 ① 먼저 '인스타그램'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 ④ 팔로잉 되었으니 방문해 주실꺼죠!!



시의회 동영상이 있나요?
있어요~!!



- ① 먼저 '유튜브' 앱을 실행
- ② '의정부시의회'로 검색
- ③ '구독'을 눌러주세요
- ④ 이제 시의회 동영상이 내 손안에 쏙!!



방문·방청안내

문의사항
031-828-2542~4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의회 홈페이지(www.ujbcl.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후 방청 일자에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시면 됩니다. 비회기 중에는 의회 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사전신청)

청원안내

문의사항
031-828-2533

의정부시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서명·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국가기관 모독,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진정안내

문의사항
031-828-2533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소식」 의정부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정부시민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는 의정부시의회가 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의회소식지를 읽고 좋았던 점, 보완할 점 등을 보내주세요!



1. QR코드 촬영 또는 링크
(<https://forms.gle/wNu52uyuhsARMjN77>)
2. 설문조사 사이트로 접속
3. 문항 답변

의회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안내

의정부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회소식을 담은 「의정부시 의회소식지」를 반기별로 발간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아래의 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신청(세대당 1부를 원칙으로 함)

신청서비치 의회 사무국, 의회 홈페이지(www.ujbcl.go.kr)

▲ 이 선을 절취하세요!

의회소식지 무료구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구분		일반소식지 ☐ 점자책 ☐

상기 본인은 의정부시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의 구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의회 의장 귀하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의회소식지 발송자료로만 활용합니다.